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서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 않는 않았지만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 ‘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

-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A대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된 상황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전역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군인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듣고 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A대위의 탄원서 중

2017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A대위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역이 며칠 남지 않은 단기 장교였던 A대위는 전역과 동시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수사 중간에 급작스럽게 구속이 되면서 전역이 무기한 연기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죄 판결은 억울했지만 구속으로 휴직된 상태에서 항소까지 하게 되면 항소심,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하는 일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했던 터라 A대위는 별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점을 모두 인지하고 A대위를 괴롭히기 위해 수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구속시켜버렸던 것입니다.

-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저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저를 도와줄 거라며 국선 변호인을 맡은 군 법무관은 별다른 조언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판이 빠르게 끝나기만 바란 것 같아요. ‘항소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앞날을 걱정하던 인솔 간부님이 군사법원 관계자에게 “이거 빨간 줄 그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관계자는 대답하기가 귀찮았는지 무성의하게 “네 안 그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당한 결과를 바보같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 예비역 병장 B의 탄원서 중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총 3명입니다. 뒤늦게 피해 사

실을 인지하고 구제를 시도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소를 못하게 하려고 집행 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듣고 항소를 포기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게이라는 이유로 지워지지 않는 전과를 평생 짐처럼 지고 살아가게 된 셈입니다.

- 색출로 인한 트라우마 호소

“수사 받고 난 후 몇 달 동안은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부대 내에서 수사관들처럼 양복 입은 사람만 보이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오면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 현역 간부 F의 탄원서 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쓰며 지나간 기억을 되짚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수사관이 갑자기 부대로 찾아와 성적체성을 캐물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생활을 하나하나 자백하게 만들었던 경험은 절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색출 수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군사법원마저 인정했던 ‘불법색출수사’

“색출 사건으로 색출 당한 다른 분 재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에게 고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이 증인대에 서있었습니다. 그 수사관은 자신이 행했던 적법하지 못한 행위들에 관한 불리한 질문들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라는 대답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라는 분노감까지 들었습니다.” - 예비역 병장 B의 탄원서 중

색출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고, 아직까지도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홍학교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학교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 모욕, 자백 강요, 함정 수사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군사법원은 홍학교의 수사가 모두 불법이란 점을 인정해 수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는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끝까지 고개를 뺏뺏이 들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 계속되는 인사 불이익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반 토막이 나버렸지만 집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며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으며 생활비를 보내드렸지만 모아놓은 돈이 떨어져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은 커져만 갔습니다.” - 현역 간부 D의 탄원서 중

“부대에서는 제게 관심 간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휴가,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지휘관과 멘토로 지정된 간부가 전화를 합니다. 그들은 관리를 한답시고 어디냐? 뭐하냐? 며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을 합니다.” - 현역 간부 F의 탄원서 중

“연장복무 탈락과 장기복무 탈락 그리고 진급 탈락. 어린 날에 그렇게 바라던 군인으로서의 삶이었는데..... 군인으로서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 현역 간부 H의 탄원서 중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정체성이 저를 표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지냈고 부대 사격 훈련도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처럼 정상적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 예정자들이 받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라서 지휘관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중대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현역 간부 J의 탄원서 중

“군형법92조의6 ‘추행죄’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복무에 선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도 떨어지면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 현역 간부 I의 탄원서 중

“부사관 학교까지 찾아오며 수사를 벌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마음에 부사관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부사관 학교를 퇴교한 L의 탄원서 중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급여의 절반만을 받고 있는 사람, 누구나 선발되는 대위 진급에서 혼자 탈락한 사람, 장기 복무에 선발되지 못해 결국 군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 게이라는 이유로 중대장에 임명되지 못한 사람, 휴가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서 될 하는지 보고해야 하는 사람, 계속되는 수사와 추궁에 별수 없이 군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 색출 사건은 수많은 군인들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형법 92조6’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은 인사자력 상에 ‘성 관련 범죄’ 로 기록되기 때문에 진급, 장기복무 선발 등에서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군형법92조의6’ 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색출 피해자들은 2~3년 안에 쫓겨나듯 군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다 끝내놓고, 1년 가까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도 한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그냥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언제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과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예비역 간부 G의 탄원서 중

2018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양상운)은 전역한 색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의 하에 맺은 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선고가 어떻게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직을 보류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무죄 판결 이후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공판 절차를 다 밟고 1년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까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형법92조의6’ 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바보같이 군 밖에 몰랐습니다. 소대원밖에 모르고 저의 피 같은 20대를 오롯이 군에 헌신했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한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번 편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20대 젊음을 최전방에 다 바쳤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군에 헌신했고, 군을 사랑했습니다. 지휘관, 동료들도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응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 92조 6항만이 저를 군과 갈라놓고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 현역 간부 C의 탄원서 중

피해자 대부분은 직업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군은 이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굴레를 씌워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젊음을 바쳐 만들어낸 이들의 헌신을 부정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2019년 1월에는 해군에서 색출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3명의 장병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색출 되어 수사를 받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지금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색출 사건은 계속하여 벌어질 것입니다.

군대에서의 대대적인 성소수자 색출은 우리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여

만들어낸 사건으로 관련한 판례도 없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어 하급심 간의 판결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기저에는 ‘합의된 성관계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 물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단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군을 나선 지금도 언젠가 다시 부사관이 되어야 할겠다는 마음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돌아온 뒤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전공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틈틈이 교양수업을 통해 안보학, 북한학 등을 이수하여 군에 대한 공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부사관 학교를 퇴교한 L의 탄원서 중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달라는 것,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 그렇게 일상을 돌려달라는 것. 그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듯, 이들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동성애를 즐기며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차별과 혐오로 무장한 일부 보수 교회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사이익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저의 이야기가 일조가 되고 그렇게 제가 다시 꿈꿀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 부사관 학교를 퇴교한 L의 탄원서 중

피해자들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시민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만인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10건이 넘는 색출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제기되어 있는 ‘군형법92조의6’을 적용해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일에 단호히 반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저라는 사람과 저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훗날 저를 더 견고히 해줄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 전역한 예비역 간부이자 무죄 탄원 투쟁 기획에 동참하는 M의 탄원서 중

끔찍한 기억을 딛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로 결심한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19. 06.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